



## I 이달의 소식

### 1. 모임안내

1쪽

## II 내용

### 1. 노아 (13) 믿음과 행위 - 이종헌

2쪽

### 2. 성경 그리고 창조와 수학 (13) 결론 - 옥봉흠

3쪽

### 3. The BIBLE Comes Alive(11) by Clifford Wilson - 이종헌 역

4쪽

### 4. 창조단상 (13) 성경에 손전화를 언급하고 있을까? - 박종환

11쪽

## 인사말

평안하십니까?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맞은 회원 여러분들께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말이 그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두 종류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은 한국이라는 땅에서 살고 있고, 우리의 영은 하늘나라에 적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세상의 삶은 고달프더라도,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평강이 있습니다. 혹시 너무나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적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 창조과학회 대구지부장 이종헌 올림



## 1. 12월 정기모임 안내

창조과학회 대구지부에서는 매월 정기 스터디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과학 자료를 발굴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보다 전문성 있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며, 상호교제를 통해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월(12월)모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 2003년 12월 09일 화요일 오후 6시 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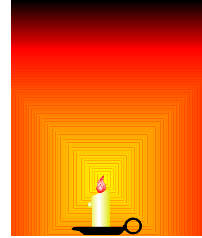
장소: 창조과학회 대구지부장 이종헌 선생님 댁  
(가든하이츠 105동 102호)

내용: "Bible Comes Alive(성경고고학 연구)"

발표: 이종헌

약도: 문의전화 (053)743-6058





## 믿음과 행위

아브라함에 관하여 신약성경에서는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라고 말하고 있고, 야고보서 2장에서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전혀 모순 되지 않습니다. 일단 상황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로마서 4장의 말씀은 창세기 15장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늙은 나이에 아들이 없었지만 그의 씨가 번성한다는 약속을 아무 의심 없이 무조건 믿었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행위를 할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믿는 것밖에 다른 수가 없었는데, 그렇게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는 것 자체가 위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늙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은 창세기 22장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거기서는 이미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야고보서는 이것에 대해 그가 의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삭은 그를 통해 아브라함의 씨를 번성케 하신다는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죽어버린다면 그의 자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 씨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아들을 제단에 바치는 행함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바로 그 약속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아들 대신에 다른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칠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과감히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인해 의롭게 여겨졌던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창세기 22장의 사건은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일종의 시험이었습니다. 몹도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 아브라함만이 믿음과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여 지구상에 사는 10억 명 정도의 사람이 모두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일 때, 노아는 “그러나 그들의 날은 일백 이십년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마치 현재를 사는 우리가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으며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하듯이 노아는 120년 뒤에 있을 홍수를 대비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땅에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었지만 얼마 뒤에 엄청난 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은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것과 같은 믿음입니다.

방주에 탔던 노아는 방주가 파도에 밀려 이리저리 요동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던 것처럼 노아에게는 죽어도 다시 살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1년여 기간의 방주 생활이 노아에게는 두려움이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으로 행복한 기간이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생각이 점점 멀어진 것 같습니다.) **창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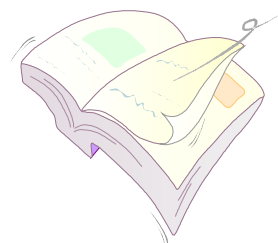
<<책 소개>> [www.rae.org](http://www.rae.org) 에서 추천한 도서

## The Revolution Against Evolution

By Douglas B. Sharp

### 1. Introduction

- Reasons For Studying Creation
- Avoiding Sectarianism
- Avoiding Compromise



### 2. Order From Disorder?

### 3. Historical Geology And "Fault Finding"

### 4. Early Man

### 5. Which Model Is Best?

### 6. Animals That Prove Cre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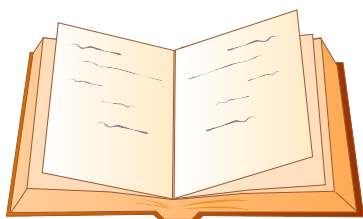
### 7. Proteins, DNA, And The Cell

### 8. The Stars And The Planets

### 9. Answering Common Arguments

### 10 Evidence Versus Myths

### 11. Issues And Answers





## 7. 결 론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과 수와 수학」을 연구함에 있어 성경말씀을 찾아보고 수학의 속성인 산술성, 논리성, 추상성과 그 외에 고대인들의 수에 대한 신비적인 개념과 상징성을 들추어 내 보았다. 우리는 보통 「A와 B」라는 논제가 주어지면 「A와 B는」 부분 집합 관계가 아니면 사돈 관계인가? 아니면 형제간인가? 하고 추측을 하면서 도식적인 관계를 찾다보니 오류를 범할 때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성경 그리고 창조와 수학」이란 논제는 필자가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기독교적 측면에서 수학을 논한다거나 수학의 측면에서 기독교를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모든 것이 있는 성경말씀 그 자체가 논리의 바탕 위에 있고 정확 무오하기 때문에 수(數)와 수학(數學)이란 학문을 통하여 위대한 성경 말씀에 접근화시키고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고 성경의 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와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진리를 찾아내는데 도움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으며 그 지으신 만물의 조화와 질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 수학적인 언어를 사용하셨다는 흔적을 남겨 두셨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본 글의 제목을 「성경 그리고 창조와 수학」이라 했다. 이러한 강의를 통하여 지금까지 여러분이 한쪽 면인 「수학의 산술성」이 수학의 전부인양 생각해온 오류를 버리고 논리성 추상성 신비적 상징성 등 모든 면을 보는 참된 수(數)와 수학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나타난 숫(數)자를 볼 때 그 숫자를 기록한 기자의 신학적 의도, 문장의 문맥 전후 관계 및 성경 해석의 일반적 유추법(類推法) 그리고 수학적인 사색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조명해 봄으로써 특히 구약 성경의 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수(數)는 만물의 근원이며, 자연 법칙이 수(數)의 질서이고 조화」라는 것을 알았던 피타고라스나,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이 문 안에 들어오지 말아라」했던 플라톤이나,

「나의 자식들이 역사를 읽고 수학과 우주론을 공부해 주었으면 한다. 그 것은 신에 따르는 일이며 인간의 사명이기도 하다」고 했던 크롬웰이나,

「수학의 수준은 그 나라의 국력에 비례한다」라고 했던 나폴레옹,

이 외에도 「약간이라도 시인이 아닌 수학자는 완전한 수학자라고 할 수 없다.」라고 했던 독일의 스트라스(Strass, 1815~1897),

「수학은 과학의 여왕이다」라고 했던 독일의 가우스(Gauss, 1777~18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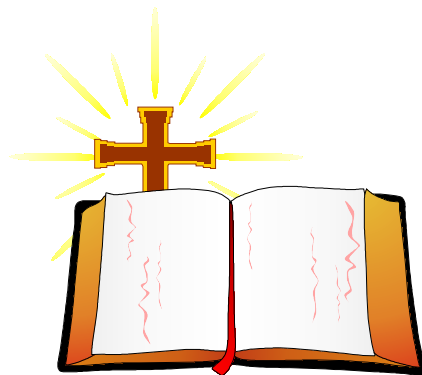
「음악은 감각의 수학이고 수학은 이성의 음악이다」라고 했던 영국의 실베스터(Sylvester, 1814~1897)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수학이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수학이 우리의 사고나 생활 교육 등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그 바탕이 이루어져 있으며 필요하고 중요한가를 인생을 살고 간 그들이 남긴 말에서 알 수 있다.

본인은 이러한 이들이 남긴 말보다도 창 1 : 8 「땅을 정복하라」, 빌 4: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 위에 본 글을 다음의 성경 말씀으로 결론지으면서 끝내고자 한다.

○ 사 40:26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Lift your eyes and look to the heavens: Who created all these? He who brings out the starry host one by one, and calls them each by name. Because of his great power and mighty strength, not one of them is missing.)」

○ 욥 38:4~6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찌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네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Where were you when I laid the earth's foundation? Tell me, if you understand. Who marked off its dimensions? Surely you know! Who stretched a measuring line across it? On what were its footings set, or who laid its cornerstone--")」

○ 롬 11:36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For from him and through him and to him are all things. To him be the glory forever! Amen.)」. **창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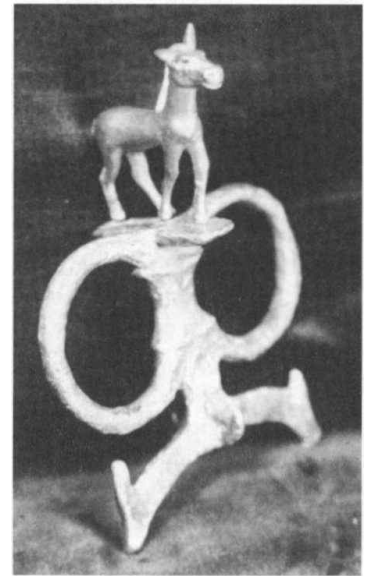


## 전차 바퀴 위의 당나귀

이 황금 당나귀는 우르의 무덤에서 발견된 여왕의 전차 바퀴 위에 올려져 있다. 그것이 말이 아니라 당나귀임을 주목하라. 이집트에서 말은 아브라함 시대보다 수백 년 후에 길들여졌다고 믿어지며, 그의 시대에는 말을 “동쪽의 야생 나귀”라고 불렀다는 것이 흥미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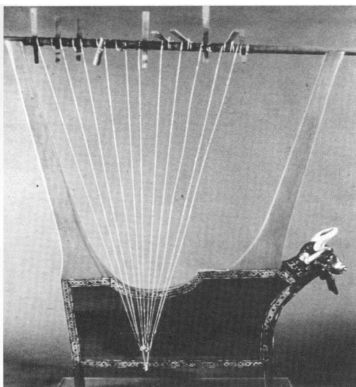
성경에서 말을 처음 언급한 것은 창세기 47:17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할 때이다. 거기서 우리는 이집트 사람들이 요셉에게 말을 건네줄 때 그는 그들에게 빵을 주었다고 되어 있다. 말에 대해 평상적으로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표현된 것에서, 성경 이야기의 지방색이 그대로 유지된다.

전차 바퀴 자체는 철로 만들어졌는데, 소위 말하는 “철기시대”보다 1,000년도 더 이전이다. 창세기 4:22에 보면, 두발가인은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라고 되어 있다. (후기의) 철기시대에는 철이 훨씬 더 풍부했지만, 훨씬 이전시기에도 어느 정도까지는 철이 사용되었다. 요즘은, 통상적으로 주장하는 어떤 “시대”가 옛날에 믿었던 것처럼 명쾌하지 않다.



전차 바퀴 위의 당나귀

성경에서 철을 언급한 것이, 비평가들이 주장한 것처럼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니다.



우르 왕가의 무덤

### 동굴에서 나온 하프(수금)

이전에 고등 비평가들은, 다윗 시대에는 그렇게 일찍 그러한 악기들이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다윗이 10현의 악기를 가질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우르에서 나온 하프는 다윗 시대보다 1,000년 이전의 것으로 측정되며, 실제로 13개의 줄을 갖고 있다.

## 우르에서 나온 수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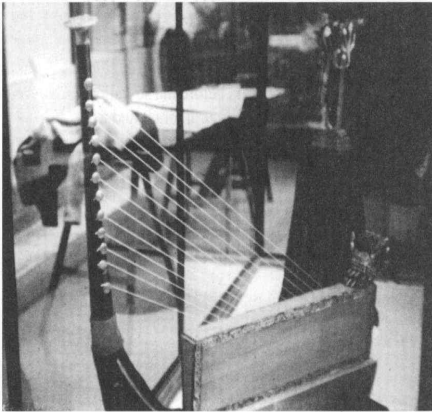
이것은 우르에서 나온 하프(혹은 수금)이다. 또 다시 비평가들은 하프와 기타 잘 발달된 악기들이 아브라함 시대처럼 이른 시기에는 알려져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그보다 1,000년 뒤에도) 그렇게 이른 시기에는 그런 하프가 없었으므로 다윗이 10현의 악기를 연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 하프는 비록 재현된 것이지만, 우르 왕가의 무덤에서 발견한 것과 정확히 같은 모양으로 재현한 것이다. 공예품의 일부는 그것들을 썼던 벽과 함께 붕괴되어 버렸다. (재생은 아니지만) 재현은 가능했다. 13개의 줄을 고정하는 위치가 보였다. 그 당시에는 줄이 10개보다 더 많았다: 다윗이 10현의 악기를 연주했다는 것에 관한 비평은 찾아볼 수 없었다. 성경적 배경과 관습에 대한 이런 통상적인 참고자료는 매우 많다. 그것들은 모두 함께 성경 작가들의 완전성에 대한 확실한 증거이다.

이들 수금 몇 개가 우르 왕가의 무덤에서 발견되었다. 분명히 이것은 말하자면 시간이 오래된 단 하나의 하프가 아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보다 훨씬 이전부터 인간의 여흥의 수단으로 음악이 자리를 잡았다. 수금의 일부로 만든 황금의 염소 대가리는 아브라함 시대 보다 훨씬 이전 사람들의 훌륭한 솜씨를 또 다시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

## 우르에서 나온 또 다른 수금



### 우르에서 나온 또 다른 수금

이런 굉장한 수금이 여러 개 있다. 이것은 우르의 영화로운 시절처럼 재현한 것이다.

아브라함의 고대 도시에서 나온 굉장한 수금이 여기 또 하나 있다. 왕가의 무덤에 이것이 묻혀있었기 때문에 왕가의 구성원 스스로가 그런 아름다운 악기를 연주했는지 질문해 볼 만 하다.

무덤에 묻히는 물건들은 특별히 죽음 이후의 삶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에서 강한 인상을 받는다. 그러한 준비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며, 동물이나 새는 시신을 묻지도 않고, 오직 사람만이 음식과, 가구와, 기타 내세를 위한 물건들을 묻는다는 것을 앞서 알아보았다.

그러한 습관은 죽음 이후의 삶이 있을 것이라는 인간의 타고난 믿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삶에 대한 진정한 지식은 성경에서만 유일하게 발견된다. 즉, 영원한 삶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한복음 14:6)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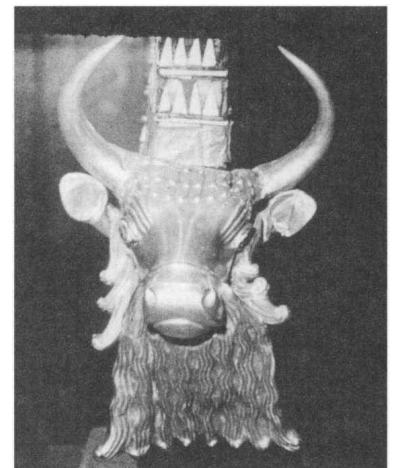
## 우르에서 나온 황금 염소 머리

이 특별한 황금 염소 머리는 우르에서 나온 또 다른 수금 위에 있던 것이다. 그 장엄함은 또 다시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 시대 보다 훨씬 이전의 우르의 영광을 상기시킨다. 그것은 창세기 초반의 사람들이 장인(匠人)으로서의 능력이 있었다는 일반적인 양상에 잘 들어맞는다.

창세기 4:21-22의 묘사는 홍수 이전의 것이므로 우르의 문명보다 훨씬 앞선다. 거기서 우리는 유발/Jubal이 “수금/harp과 통소/organ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며, 두발가인/Tubal-Cain은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임을 본다.

발굴자들은 우르의 발전된 기술을 보고 놀랐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것이다. 사람의 기술적 관심과 음악적 관심 모두에 대한 실마리가 창세기 초반부에 분명히 주어져 있다.

일부의 “현대” 작가들은 이들 기록이 솔로몬 시대 이후에 처음으로 수집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록들을 보면 눈으로 목격한 것임을 일관성 있게 지적한다. 창세기 기록에는 눈으로 목격한 특징이 계속적으로 나타난다.



### 황금 염소 머리

이 틀에 박힌 황금 염소 머리는 여러개의 수금 중의 하나의 일부이며, 우르 왕가의 무덤에서 발견되었다.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도시와 관련된 사치의 정도를 알 수 있다.

## 우르에서 나온 왕기(王旗)



우르에서 나온 王旗

이들 귀족 구성원들은 맥주를 마시고 음악을 들으며 축하하고 있다.

이 그림의 모자이크 기(旗)는 아름다운 청금석과 조개껍질로 만든 것이며, 아브라함의 고대 도시 갈데아 우르 /Ur of the Chaldees에서 나온 것이다. Donald Wiseman 교수는 이 왕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왕자가 신하들과 연회를 열고 있으며, 적으로부터 전리품을 받고 있다. 이것은 수메르 예술의 걸작이다.』

윗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 사람이 고대의 하프를 들고 있음을 주목하라. 인간성은 거의 변하지 않으며, 복원된 공예품과 그림들을 보면, 사람들은 모든 시대를 통하여 그들의 음악과 예술 형식을 사랑했음을 알 수 있다.

음악과 예술 형식이 발전하는 데에는 수백 세대 아니 수십 세대가 걸리지 않는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지능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으며, 발굴이 이루어질수록 그의 지능의 증거가 밝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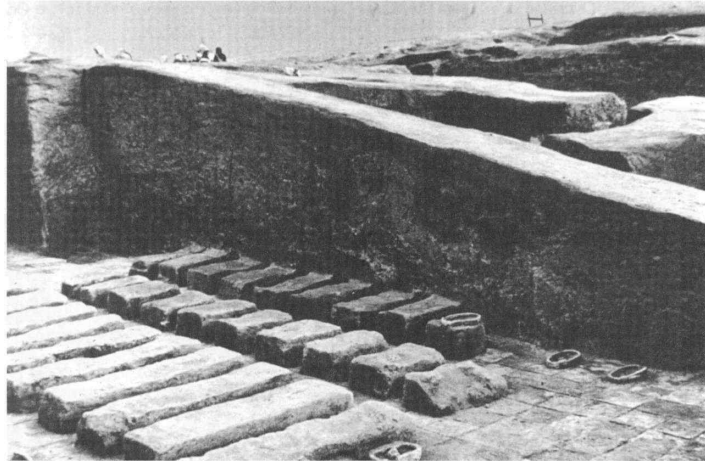
## 마리/Mari의 돌 의자

이것들은 고대 도시 마리의 의자-사실상 돌 벤치-이다. 작은 사발은 계산기를 둘 수 있는 저장소였다고 볼 수 있다. 분명히, 이전의 족장시대에 학교에서 비교적 평범하게 글쓰기가 확립되었다.

마리는 성경에서 간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몇가지 관점 때문에 흥미롭다. “성경 세계의 고고학/Archaeology in Bible Land”에서 Howard F. Vos는, 마리에서 발견된 문서에 창세기 11:16, 23, 24, 27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이름(예를 들면, 벨렉/Peleg, 스룩/Serug, 나홀/Nahor) 몇 개가 들어있으므로, 그것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실제 인물의 이름은 아니더라도) 역사적인 이름임을 보여준다고 적고 있다. “더구나 그들은 족장 이야기에 비쳐진 습관을 언급하고 있으며, 족장시대의 시리아의 전통과 부족의 구성을 설명해 준다.”



### 족장 시대의 학교

이들 돌 벤치는 마리 도시에서 발굴되었다. 그것들은 우르의 학교와 비슷한 학교 교사(校舍)의 일부를 이룬 것으로 믿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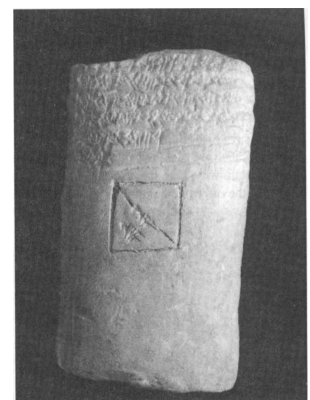
내친 김에 주목할 것은, 이들과 기타 많은 저작물들이 아브라함보다 수세기 이후에 살았던 모세가 글을 쓸 수 없었다는, 한 세대 이전의 비평에 대한 답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한 주장은 어리석은 생각임이 드러났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그들은 모세가 글을 쓸 줄 알았다 하더라도, 그가 법전에 대해서는 몰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다가 법전이 발견되니까, 이번에는 모세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의 법전을 베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모세의 법은 다른 법에 대해서, 특히 영적인 가치의 영역에서 훨씬 뛰어난 것이라고 밝혀졌다.

### 우르의 피타고라스 정리

이것은 아브라함의 도시 우르에서 나온 점토판이다. 여기에는,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제곱은 다른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고 하는 피타고라스 정리의 공인된 표현이 실제로 들어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서판의 윗부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의 수학자 피타고라스보다 1,500년이나 이전에 그 특별한 정리의 원리를 알았음을 시사해주는 숫자들이 들어있다. 이 지식은 건물 같은 것을 건설할 때 유용했을 것이다.

또 다시 우리는, 성경의 저자들이 주장했던 시기보다 수세기 뒤에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알았던 것들을 사실은 “고대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음을 발견한다.

방대한 시기의 시간에 걸쳐 지능적인 상태로 발전해 가는, 반인(半人), 반 원숭이의 상태로 있는 원시인 같은 것은 절대로 없었다. 대신에 우리는, 문명이 생기자마자 인류는 지능적이었고, 종종 고도로 발달된 글쓰기 기술을 가졌으며, 항상 복잡한 언어를 사용했다는 등의 증거를 발견한다.



### 우르의 피타고라스 정리의 초기 형태

피타고라스 정리의 원리를 알았고, 이것을 건물의 건설에 이용하였다.

## 우르의 지구랏트/Ziggurat(사원 탑)



### 우르의 지구랏트

우르의 이 지구랏트 혹은 사원 탑은 Leonard Woolley 경이 발굴했다. 또한 거기에는 약 2,000명의 사원 종사원이 실을 짓고, 천을 짜며, 정확한 기록을 보존하고, 무역을 일으키고 있었다.

도시의 종교의 약 사분의 일이 다양한 사원에서 행해졌는데, 가장 중요한 사원은 달의 신(神) 난나/Nannar의 지구랏트(사원 탑)이다. 난나는 신/Sin이라고도 하는데, 현대의 단어 “sin”(죄)과는 상관이 없다. 우르 문명에 관한 큰 오점은 그들의 종교와 관련이 있다. 그들의 지구랏트에 관한 기록을 보면 그들의 숭배에는 달의 신에 대한 제물과 관련하여 온갖 종류의 추행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래 지구랏트는 하나님께 도전하기 위한 의도로 만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Josephus는, 니므롯은 주 여호와에 대한 공공연한 적대자였으며, 하나님이 또 다시 지구를 홍수로 심판하시기 위해 내려오시더라도 자기와 다른 사람들이 안전하기 위해 바벨탑의 건설을 조처했다고 말한다. 이것은, 성경과 바빌론의 기록 모두에서, 하나님이 왜 그러한 행동에 대해 화가 나셨으며 왜 그 불쾌한 건물을 파괴시키셨는지의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구(舊)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서 지구랏트 형태의 건물들이 발견되는 것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니므롯의 공개적인 도전을 따라왔을 것이다.

종교적인 의식 외에, 이 거대한 구조물에는 수천 명의 여자들이 고용되어, 실을 짓고, 천을 짖으며, 무역이 국제적으로 확장되었다. 놀랄 만큼 현대적인 부기(簿記) 체계가 유지되었는데, 수입과 지출의 합계, 자국과 타국의 고객에 대한 채무와 부채 같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

## 성경에 손전화(Hand Phone)를 언급하고 있을까?

성경에 전화라든가 통신에 관한 말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

YES!

찾아볼까요?

욥기 38장 35절에 보시면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그것으로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Do you send the lightning bolts on their way? Do they report to you, 'Here we are'?-NIV)"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번개는 전기 통신 같은 것을 뜻합니다. 한자 '電'자도 '번개 전'자죠. 당시 봉화불이나 흔들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휴대폰에 대해 이야기를 했으니,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후 수천 년이 지나 1800년대 중반에 미국의 과학자이며 유명한 화가이며 독실한 기독교인인 모르스가 전신기를 발명하고 모르스 부호를 발명해 가지고 전기를 통해서 정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저기 있나이다" 하고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동전만 있으면 공중전화로 "설악산에 있나이다. 자고 가니 걱정하지 마사이다" 등을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도 귀찮아서 길을 걸어가면서도 휴대폰으로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지요.(예전에는 길가다가 혼자 중얼거리다가는 정신이상자라고 놀림을 받는 시대도 있었죠?)

그런데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일찍 욥에게 가르쳐 주셔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이와 같이 최첨단의 과학 앞에는 성경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린 휴대폰...^^

본 전자소식지를 계속해서 받아 보기 원하시면, 저희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홈페이지([creation21.org](http://creation21.org))를 방문하셔서 **회원가입(무료)**하시고, 가입하실 때 반드시 **E-mail** 주소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홈페이지에서 이메일 부분을 누르시고, 요청사항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날마다 더욱 좋아지는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